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본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¹⁾

이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juno0505@ginue.ac.kr

1. 서론

본 연구는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인도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운영을 위해 개발된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 및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배경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도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2001년의 인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122개의 주요 언어와 1,599개의 기타 언어가 존재한다고 한다. 또 인도에는 이른바 '국어'라고 칭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며 공용어인 힌디어와 영어와 함께, 인도 정부가 인정한 22개의 계획 언어(scheduled languages)가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인 인도에서는 초등교육에서부터 교육 매개어로 영어나 힌디어, 지역어, 유럽어 중 3개의 언어 사용이 가능하게 '3개 언어 교육 원칙(Three Language Formula)'을 실행하고 있다. 신진영(2019)에 따르면 인도는 이 원칙에 따라 힌디어 언어권은 제1언어를 힌디어로, 비힌디어 언어권은 제1언어를 지역어로 하는 등 주별로 힌디어 사용 지역과 비사용 지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3개 언어 교육 원칙'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모어를 포함한 3개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11학년과 12학년에서는 2개의 언어를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교 교육에서 언어 간 조화와 평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언어의 경우, 인도의 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벵골어, 편자브어, 타밀어 등의 다양한 지역어 및 아랍어, 티벳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의 외국어를 학습해 왔다. 그리고 작년인 2020년에는 한국어도 제2외국어로 채택되어 인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게 된 것이다.

한국어가 인도의 제2외국어 과목 중 하나로 채택되게 됨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지난해 인도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재가 제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 이어 지난해 개발된 인도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현재 진행 중인 교재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보도록 하겠다.

1) 본 연구는 2020년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 및 교재 인증제 도입' 연구와 세종학당재단의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신남방 국가 중심)'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2.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지난해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하여 진행된 '한재영 외(2020),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는 그간의 인도 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어 인도의 대학, 중고등학교, 세종학당재단 등에서 한국어교육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한국어교육은 1974년 한인 문화협정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1995년 첫 학위과정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네루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된 한국어교육은 이전에는 수료과정으로 운영되던 것이 1995년에 학사과정으로 승격되었고, 2013년에는 석사과정, 2015년에는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현재, 3년 이상의 학위과정은 네루대학교, 자미아대학교, 자르칸드대학교, 국립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고, 1년 단위의 수료과정은 델리대학교, 마가다대학교, 영어 및 외국어대학교, 하이데라바드 대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마니푸르대학교, 영어 및 외국어대학교 등은 학위과정 개설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위의 연구에서는 인도 15개 대학의 세부 현황을 소개하였는데, 대체로 수강 중인 학습자 수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40명까지로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대학마다 30~50명 정도의 학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 목적은 취미, 취업, 유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석사 이상의 교원이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주로 인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인 'Bharati Korean' 시리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내의 대학 기관에서 발간한 교재와 세종한국어를 사용하는 기관도 소수 있었다. 교과목명의 경우, 상세한 개개의 교과목명을 밝혀 적은 곳보다 수료과정이나 학위과정과 같이 'Korean Language Certificate Program, Korean language Diploma Program' 등과 같이 교육과정명으로 대체된 경우가 많아, 어떠한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세 교과목명을 기입한 경우에는 교양과정으로 개설된 경우에 교과명이 상세히 제시된 경향이 있는데, 'Korean Grammar', 'Hanja', 'Vocabulary and Gramma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등이 가장 많고, 'Korean Culture', 'Korean Writing and Comprehension', 'Basic Reading and Writing' 등도 자주 개설되는 것으로 보인다. 'Basic Conversation'이라는 과목이 개설된 예도 있으나 매우 드물며, 교과목명에 'Speaking'이 명시된 경우는 없었다.

한편, 인도의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이제 막 태동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2개 학교에서의 한국어 시범 수업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 기준 15개의 학교에서의 한국어 시범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취미반을 포함하면 약 20개 정도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인도의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재영(2020)에서는 22개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요약하여 보면 학교당 한국어 학습자 수가 160명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대체로는 20~50명 수준이고 대부분이 초급 수준의 강좌가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라고 파악될 만한 정보는 찾기 어려우며, 과목명도 분명하지 않은데, 대체로 '한국어 초급, 한국어문법, 한국 문화' 등으로 과목명이 파악된 것이 대부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Happy Korean1'이라는 교재를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 가톨릭대학교의 '행복한 한국어1'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으로는 먼저 세종학당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인도에는 7개의 세종학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소 100명에서 최대 350명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종학당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한류에서 출발한 취미 목적 학습자, 그리고 취업이나 유학 목적의 학습자가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은 대체로 세종한국어 교재를 숙달도 단계에 맞추어 짜여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이나 현대 문화, 태권도, 한국 전통 음악 등 문화 강좌가 병행되기도 한다. 그 외의 교육기관으로는 사설 학원을 들 수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10대~20대의 학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수는 학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고 적게는 예닐곱 명 정도에 머문 경우도 있다. 대체로 국내 대학 교재와 세종한국어를 교재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주로 초급반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한국어교육은 대학의 수료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학위과정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15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개설된 경우도 있으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화, 문학 등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어 앞으로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곳이며, 세종학당의 경우, 학습자가 300명 이상인 곳이 두 곳이나 되는 것을 볼 때, 지역에 따라서 그 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신남방 국가의 하나인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각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교육과정이나 교재의 개발 등에 있어서 인도와 국내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한국어교육 현지화, 개별화에 힘쓸 필요가 있겠다.

3. 인도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에서 한국어가 중·고등학교 과정의 제2외국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인도의 중·고등학교용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준호 외(2020)의 연구에서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이준호 외(2020)의 연구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하고 한국어 교재 인증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표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안과 절차, 그리고 예시 또한 제시하였는데, 예시를 위하여 개발한 교육과정 하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육과정이며, 다른 하나가 인도의 중·고등학교용 한국어 교육과정이다. 이번 절에서는 위의 연구에서 개발한 인도의 중·고등학교용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 및 결과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3.1. 인도 중·고등학교의 학제

이준호 외(2020)에 따르면 인도는 인도식 학제와 영국식 캠브리지 학제 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12년 과정의 교육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학제는 CBSE(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이다. 이 학제는 크게 4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Primary Stage'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중학교에 해당하는 'Upper Primary Stage'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는 'Secondary Stage'와 'Senior Secondary Stage'로 나뉘는데 각 9학년~10학년, 11학년~12학년으로 구분된다.

<표 1> 인도 중·고등학교의 학제

단계		학년
초등학교 Primary Stage		1
		2
		3
		4
		5
중학교 Upper Primary Stage		6
		7
		8
고등학교	Secondary Stage	9
		10
	Senior Secondary Stage	11
		12

현재 인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제1언어와 제2언어를 학습하고 있는데 제1언어로는 영어 또는 힌디어를 학습하며 제2언어로는 벵골어, 펀자브어, 타밀어 등의 다양한 지역어 및 한국어, 아랍어, 티벳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의 외국어를 학습한다. 외국어 교과목의 교육은 중학교 학년이 시작되는 6학년에 시작하여 고등학교 학년이 끝나는 12학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6~8학년은 주당 3차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9~12학년의 경우 대체로 주당 2차시의 외국어 수업이 배정되어 있다. 한편, 인도 학생들은 10학년과 12학년에 진학시험(Board Exam)을 보게 되는데, 10학년 진학시험은 다섯 개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이 5개의 교과목은 제1언어와 제2언어, 사회, 수학, 과학이다. 10학년 진학시험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과학 계열(Science Group), 상경 계열(Commerce Group), 인문 계열(Humanities Group)로 계열이 나누어지게 된다. 또 12학년에는 대학 진학시험이 시행되는데 최소 다섯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된다. 하나의 언어 과목이 필수 교과목이며 영어 또는 힌디어 중에서 선택한다. 추가로 한 과목을 더 선택할 수 있는데 외국어 과목이 선택 가능한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제2언어는 진학시험과 대학 진학시험에서 치르게 되는 교과목이 되므로 입시를 위한 중점 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도 장차 이 진학시험과 대학 진학시험에서 치를 수 있는 과목이 된다면 기타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하여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과목이 되지 않도록 다른 제2외국어의 교육 수준과 유사하게 그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위의 연구에서는 진학시험 선택 제2외국어 과목의 교과서 목록과 그중 외국어 과목으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인 프랑스어의 2020-2021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9학년과 12학년의 평가 내용 및 지침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한국어 숙달도

기준 2급 수준까지를 최종 목표로 하고, 말하기, 듣기보다는 읽기, 쓰기, 문법, 문화가 강조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목표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이 중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어 외 제2외국어 과목의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여, 위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와 체계를 적용하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 현지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3.2. 인도 중·고등학교의 학제에 맞춘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

1)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국립국어원에서 고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과 학습자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위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주제와 맥락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동시에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간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 표준 교육과정은 다중언어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데 다중언어주의는 한 인간의 언어적 경험이 가정에서 시작하여 그 사회의 언어를 거쳐 다른 국가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어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개인의 언어목록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언어목록을 다양화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현지화·개별화된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도 이러한 성격과 목표를 공유하는데, 인도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동시에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간 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영어와 힌디어, 지역어 외에 추가적으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언어목록을 확장하고 언어 문화적으로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인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역시 언어와 문화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다.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자 문화의 결정체이므로 인도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사고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하며 나아가 학습자들은 인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소통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6학년에서 12학년까지 실시되며 한국어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의 학제를 고려하여 각 과정에서 수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후에 한국어 학습 과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단계를 구분하였다.

<표 2>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단계 구성

학년		단계	
중학교	6	기초	
	7		
	8		
고등학교	Secondary Stage	9	기본
		10	
	Senior Secondary Stage	11	심화
		12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르면 각 단계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6~8학년에서는 한글 및 기초적인 한국어 학습과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초점을 둔다. 학습자들이 과학적 원리와 애민 정신의 철학이 담긴 한글을 학습함으로써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문자 언어의 개발 원리를 이해하고, 언어에 담긴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한국어의 문자와 문장 구조 등의 형태적 특성이 인도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 힌디어, 지역어와는 다르므로 초기 학습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 학습의 기초를 견고히 하도록 한다.

9~10학년에서는 한글과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 한국어 학습에 목표를 둔다. 개인적이고 친숙한 주제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세계 시민의 첫걸음은 다른 언어문화권과의 소통에 있음을 알고, 한국어 문화권 담화 공동체와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학년부터는 학생들의 주된 의사소통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 관하여 한국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다.

11~12학년에서는 학습자의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주로 접하게 되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한국어 학습에 초점을 둔다. 학교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과 장소, 학교 공동체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표현들을 익히며 인도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두 나라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10학년의 진학 시험(Board Exam) 이후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과학 계열(Science Group), 상경 계열(Commerce Group), 인문 계열(Humanities Group)로 계열이 나누어지므로 11~12학년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에는 각 계열과 관련된 기능, 어휘나 표현 등의 학습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3)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년별 목표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준호 외(2020)에서는 먼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국내 대학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한국어 학습처럼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한 등급을 끝내는 데에 최소 200시간의 학습 시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인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델리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초 단계의 6, 7, 8학년에 약 288시간, 기본 단계인 9, 10학년과 심화 단계인 11, 12학년에서는 각 128시간씩 총 256시간의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여 7년의 교육 기간에 최대 544시간의 한국어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업 결손이나 학교 활동, 행사, 문화 수업, 시험, 졸업, 입학 등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배제한 것이므로 실제의 수업 시간은 이보다 훨씬 적게 잡아야 할 것이다. 또 주당 두세 시간의 학습만이 가능한 경우, 복습이나 반복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544시간이 600시간이 소요되는 3급의 완수에 더욱 가깝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400시간이 소요되는 2급을 최종 목표로 잡는 것이 훨씬 타당하며, 전술한 기타 제2외국어 과목의 성취기준도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 정도 수준을 최대치의 목표로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도달 가능한 한국어 수준을 2급으로 설정하고, 등급별 목표와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학습자들은 7년의 학습 동안 2급까지의 내용을 학습하나 각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 학습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르면 인도 중·고등학교에서 단계별 한국어 성취기준은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6학년을 입문 과정으로 설정하고 12학년까지 2급을 달성하도록 한다. 6, 7, 8학년의 기초 단계와 기본 단계가 시작되는 9학년까지는 1급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9학년에 1급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거나 복습을 통하여 학습을 강화할 수 있으며 2급을 시작할 수도 있다. 기본 단계와 심화 단계에서는 2급의 성취를 목표로 하여 12학년에서는 2급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어 사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학습한 한국어를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문자 언어 학습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언어기술이 같은 속도와 수준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고 각 학교의 학습 환경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어와 구어, 표현 영역과 이해 영역의 학습 속도와 성취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의 단계에 따른 언어기술별 목표 및 성취기준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1급과 2급의 언어기술별 목표와 성취기준을 따르며, 이를 참고로 하여 기초, 기본, 심화 단계에 따라 목표와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정하였다.

먼저, 6~8학년은 기초 단계로 6학년은 한국어 학습의 입문 과정으로 한글을 익히고,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학습하여 한국어로 쓰인 단어와 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쓸 수 있으며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인사말 정도를 암기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이 6학년 과정에서는 새롭게 학습하는 한국어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국의 국가적, 지리적 특징과 인도와 관계있는 역사적 사건, 한국인의 특성과 케이 팝(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의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7, 8학년은 한글 및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단계로 암기한 한국어 표현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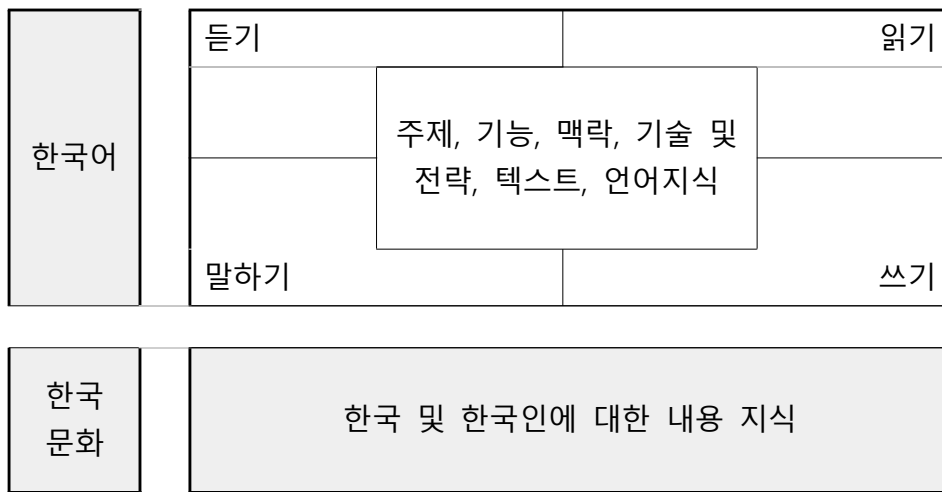
다음으로 9학년과 10학년에서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제에 관하여 한국어로 간단하게 대화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학년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의 1급 수준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10학년은 2급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어휘나 문장, 표현 등을 학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문화의 경우, 흥미와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한국 문화에 대해 학습한 기초 단계에 이어 한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 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학습하는 것이 주가 될 수 있다. 현대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한국어에 포함된 한국인의 가치관을 비롯한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다.

11, 12학년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상황 즉,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학교생활과 관련한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고 쓰며 주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진학 시험(Board Exam)을 통해 학생들의 계열이 확정된 이후인 11, 12학년에서는 각자의 학문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휘와 표현 등의 학습 비율을 선택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이 단계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에 해당하는 수준을 학습하는 단계로 정보의 요청과 확인, 메시지의 이해나 교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심화 단계에서는 한국의 일상 문화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3)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학습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주요 학습 내용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언어기술 즉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각 언어기술의 성취기준에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텍스트, 언어지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 것과 같이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텍스트와 언어지식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하였으며 용이한 활용을 위하여 학습 가능한 주제와 기능, 언어지식의 문법 및 어휘 등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 내용 학습 또한 중요시하고 있는데,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르면

인도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인도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를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과 함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내용 학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청소년 학습자의 문화 감수성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일방향이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소통과 체험이 함께하는 쌍방향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 문화 내용 학습은 한국어 학습의 연장선에서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나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습 순서를 결정할 수 있고, 영어, 힌디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습 내용의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학습 내용의 체계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기본, 심화에 이르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6학년은 한글 자모 학습, 모음과 자음, 받침과 음절의 구조, 유용한 인사말과 교실 표현 등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단계에 한글의 창제 원리 및 과정, 한국어 사용 인구 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7, 8학년은 한글과 한국어의 기본 문장 학습을 끝내고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으며 인사나 소개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내용 지식은 현대 문화와 전통문화, 문화 예술 및 일상 영역의 문화가 고르게 포함되어야 하며, 각 나라에서 문화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내용 학습에서는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머물지 않으며 한국 문화와 인도의 문화를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다양성을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기본 단계(9, 10학년)는 성취기준인 1급을 달성하고 2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이다. 9학년에서는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게 하였다. 인사나 소개뿐만 아니라 간단한 메시지,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10학년은 2급으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습자들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1급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2급으로 진입하여 사적이고 친밀한 맥락을 넘어 학습자에게

친숙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다.

심화 단계(11, 12학년)에서 2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상황에서의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고 정보에 관해 묻고 답하기, 허락과 요청, 메시지의 이해나 교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진로 계열이 확정된 후에는 관련한 계열의 학문 영역에 필요한 주제를 포함하여 학습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평가 계획에서도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숙달도 등급 및 등급별 교육 내용에 근거하되, 학습자의 연령, 현지 공교육 기관의 교육 체제 및 학제, 현지의 요구와,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제2외국어 과목의 등급 설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별화·현지화·재맥락화의 사례 중 하나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지난해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가 채택됨과 동시에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올 2021년에는 이에 이어 인도 중·고등학교용 한국어 교재 개발이 시작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지난 4월 인도의 중·고등학교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정책 과제를 발주하였고, 현재 그 첫해의 연구가 배재대학교 심혜령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발주 내용에 따르면 이 연구는 총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과제로 1차 연도에는 기초 연구·조사, 교재 내외적 구조 설계, 교재 모형 및 교수요목 설계 및 1차 기초 단계 교재 집필에 들어가고,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의 1차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부속 자료 모형을 설계하며 기본과 심화 단계 교재의 집필 완료하며, 3차 연도에는 2차 연도 2차 집필 결과물의 현장 검증 및 수정·보완, 그리고 9~10학년 기본 단계와 11~12학년 심화 단계 교재의 부속 자료 집필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난여름 타 학회의 좌담회에서 언급된 연구진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지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지의 요구를 반영한 교재를 제작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연구진에서 실시한 현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확보된 수업시수와 도달 가능한 언어 성취수준에 비해 현장에서의 요구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 현지 상황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 장면을 구현하되, 취업 등 현실적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상황도 녹여내야 한다는 점, 청소년 학습자의 흥미와 문화 감수성, 학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는 문제, 교사의 활용도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및 번역의 제시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고 곧 좋은 교재가 만들어져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도 중·고등학교(6~12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현지와의 협력이 쉽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차후, 면대면의 교류가 가능해지면, 인도의 중고등학교 등 이 교육과정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이미 개발된 교육과정 및 현재 개발 중인 한국어 교재에 대한 현지의 의견과 반응을 직접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여 차후 교육과정의 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과정 현지화와 개별화의 사례를 다른 언어권,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현지화 및 교재 현지화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본 발표를 마무리하겠다.

참고 문헌

- 김윤주(2021), 표준 교육과정에 입각한 국가, 학습자, 기관 등의 변인별 교육과정의 실질적 적용과 그 사례 - 인도 청소년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제42차 전국학술대회 좌담회 토론문.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신진영(2019), 다언어문화사회 인도의 포용적 언어교육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인도 3개 언어교육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803, 177~204쪽,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이준호 외(2020),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 및 교재 인증제 도입, 국립국어원.
- 한재영 외(2020),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 세종학당재단